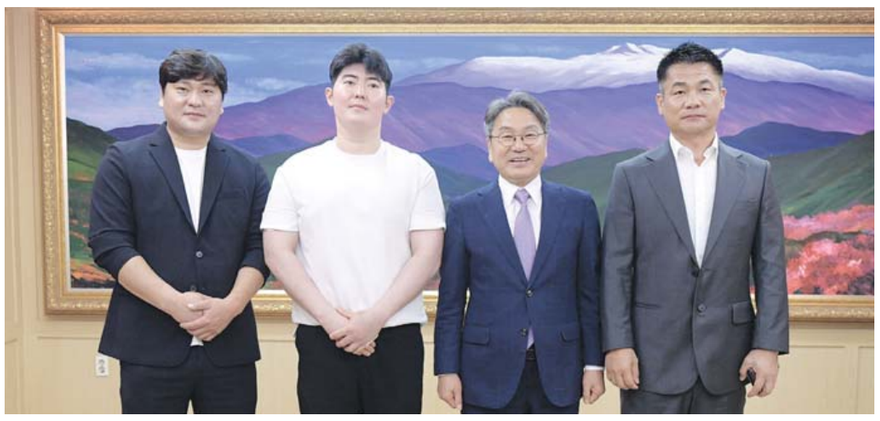
폭우 속 이웃 구한 7인 '의로운 시민' 표창

최승일·김인중·정수연·이장복·문종준씨
다수 구조활동 최원일·이강준 소방관도
강기정 시장 "광주정신 실천 감동 선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이웃의 생명을 구해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수연·이장복씨, 강기정 시장, 최승일씨.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최근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이웃의 생명을 구한 시민과 소방관 등 7명을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승일(48)·김인중(43)·정수연(49)·이장복(31)·문종준(50)씨와 최원일(42)·이강준(35) 소방관 등은 지난달 17일 광주 지역에 하루 4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곳곳이 침수되는 등 위험 속에서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최승일·김인중·정수연·이장복씨는 당시 오후 5시께 동구 소태동에서 빗물에 휩쓸려 아스콘 틈에 낀 노인을 구출했다.

이들은 두 다리가 끼여 얼굴까지 물에 잠겨 있던 위급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무판자로 물길을 막아 숨 쉴 공간을 만들고 공업용 도구를 이용해 물살을 막으며 모두 힘을 합쳐 20여분간 사투를 벌인 끝에 노인을 구조했다.

같은 시각 문종준씨는 북구 신안동 침수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80대 할머니 3명을 구조했다.

문씨는 급류에 휩쓸리는 상황에서도 재활용품이 가득한 집을 통로로 확보하고 가스 배관을 잡고 물살을 헤쳐 이웃 할머니들을 업고 나왔다.

북부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최원일·이강준 소방장은 허리까지 차오른 급류 속에서 차량에 고립된 시민을 구조했다.

로프를 붙잡고 물속을 헤치며 차량 유리창을 깨고 중년여성을 구조한 뒤 새벽까지 구조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다수의 구조 활동에 참여하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헌신했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몸을 던져 생명을 구한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며 "광주정신이 살아 있는 감동의 실천이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재난 현장에서 공동체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기리는 '의로운 시민' 표창 제도를 지속 운영해 시민 중심의 안전공동체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최승일·김인중·정수연·이장복씨는 앞서 포스코청암재단이 사회적 귀감이 되는 시민을 발굴·상찬하는 '포스코히어로즈'에 선정돼 상패와 상금을 수여받았다. /변은진 기자

市교육청,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늘봄지원 연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2025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늘봄지원연구사는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의 총책임자로, 기획·연구·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51명(초등 50명·특수 1명)을 학교 현장에 배치했다.

남구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늘봄지원연구사 제도의 상반기 운영 성과 점검, 우수·특색 사례 공유,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 논의 등이 이뤄졌다.

우수·특색 사례 공유 시간에는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키즈 스테이션 설치 및 활용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늘봄지원실장 역량 강화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 광주 늘봄학교 운영 정책과 행정사항 등이 안내됐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보고회는 상반기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교육청과 타 시·도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질 높은 광주 늘봄학교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GIST 하반기 학위수여식…졸업생 201명 배출

광주과학기술원은 "최근 오룡관 대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여식에서는 박사 72명, 석사 76명, 학사 53명 등 총 201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박사 72명은 재학 중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학술지에 총 376편의 논문을 발표해 1인당 평균 5.2편을 게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윤성 신소재공학과 박사는 박사과정 동안 19편의 논문(주저자 4편, 공저자 15편)을 발표해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최유진 AI융합학과 박사는 HCI 분야 국제학회·저널에 9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다.

사회공헌과 창업 성과도 돋보였다.

박채빈(신소재공학과)씨는 지역 아동 대상 과학 멘토링 공로로 사회봉사상을 받았으며 홍주영(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씨는 반려동물 의류 플랫폼 창업 성과로 미래인재상을 수상했다. 심기연 신소재공학과 박사는 리튬금속배터리 소재 창업으로 지스트발전재단 이사장상을 받았다.

임기철 GIST 총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기업가 정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현진 기자

호남대 응급구조학과, 캄보디아서 의료 봉사

호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가 최근 3박4일간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 해외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17일 호남대학교에 따르면 이효철 교수와 재학생 12명은 지난 14-17일 캄퐁스퓨주 광주진료소와 끼리원 마을, 훈센 프놈쓰루잇 초·고등학교 학생 137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원 11주년을 맞아 광주시와 (사)아시아희망나무가 주관하고 광주이주민건강센터가 주최했다.

김성진(4학년) 학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응급처치 교육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현지에서 체감해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정다미(2학년) 학생은 "첫 해외 봉사활동이라 서툴렀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함께 간 이들과 보람과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광주보훈청, 독립유공자 양한묵 선생 사이버 참배

광주지방보훈청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최근 꽃초롱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독립유공자 양한묵 선생의 묘소를 대상으로 사이버 참배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남군 옥천면 영계리에서 태어난 양한묵 선생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에게 광복의 의미와 독립운동 정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원아들은 양한묵 선생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묵념 후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을 통해 나라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독립운동가의 뜻을 배우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 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광주여대 재학생 17명, 바리스타 2급 자격 취득

광주여자대학교는 "최근 식품콘텐츠학과와 영양식품학과 재학생 17명이 통합커피교육기관(UNITED COFFEE EDUCATION INSTITUTE·UCEI)에서 부여하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식품콘텐츠학과 1학년 4명,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로 이뤄진 영양식품학과 1학년 13명이다.

광주여대 식품콘텐츠학과는 식품 관련 사업에서 융복합 능력을 활용해 식품산업 고도화와 식품 마케팅에 특성화된 학과이며 영양식품학과는 단체급식소 영양사, 식품회사 품질관리자, 위생사 등 식품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외식산업 분야에서 조리사·바리스타·카페 등 취업과 창업이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여대 관계자는 "학생들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새로운 식품 콘텐츠를 개발하고 외식산업 분야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현진 기자

순천 서면파출소 '기초질서 확립' 합동 캠페인

순천경찰서 서면파출소는 "최근 선평삼거리 일원에서 기초질서 확립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서면행정복지센터, 서면예비군중대, 농협 서면지점, 서면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출근길 시민들에게 무단횡단 금지, 음주소란 방지, 노쇼 예방 등 기초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 농협과 연계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 요령을 홍보하고 의심 전화·문자 수신 시 즉시 112또는 금융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이병진 서면파출소장은 "주민 모두가 기초질서를 생활화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작은 실천이 큰 안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함평 해보면 귀농귀촌協 취약계층 성금 지정기탁

함평군은 "최근 해보면 귀농귀촌협의회가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50만원을 해보면사무소에 지정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보면 귀농귀촌협의회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이웃 사랑에 앞장서기 위해 기탁금을 마련했다.

군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 사회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장영복 해보면 귀농귀촌협의회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희 해보면장은 "해보면 귀농귀촌협의회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사례 관리를 통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나주경찰, 한전 나주지사 교통안전 교육

나주경찰서가 한국전력 나주지사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17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교통관련 법령 설명과 함께 실제 사고 사례를 담은 영상 자료 시청으로 참석자들의 관심과 집중을 이끌어냈다.

특히 새로운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전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변경 사항을 전달해 호응을 얻었다.

교육을 맡은 정현영 경감은 "교통안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출퇴근 및 업무상 차량 운행이 잦은 한국전력 직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인사

국세청

◇초임세무서장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영훈 ▲익산세무서장 장성기 ▲정읍세무서장 김해영 ▲목포세무서장 김종수 ▲여수세무서장 김훈

모집

▲광주매일신문 제1기 전남글로컬리더스아카데미 원우회(회장 정현택) 8월 모임=21일(목) 오후 6시30분 남악 시골집.

▲담양지역발전협의회 8월 정기 월례회의=19일(화) 오전 11시30분 담양공고 앞 원조제일숯불갈비. 담양군 담양읍 마두길 4. 061-381-1234, (사무국장 이달성 010-3638-3809).

행사

▲제4회 '죽화경(竹花景)' 유럽수국축제(대표 유영길)=31일(일)까지 장미정원 죽화경, 개장시간 : 오전 9시30분-오후 6시 담양군 봉산면 유산길 71(유산리 474). 이용 안내 : 010-8665-7884.